

“제철 전어…광양서 가을 ‘미식관광’ 즐겨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제철 전어를 매개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가을 미식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월면 망덕포구 무점섬 광장 일원에서 ‘제25회 광양전어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섬진강 전어와 가을의 추억, 맛에 빠지고 멋에 취하다!’를 주제로 제철 수산물인 전어의 맛을 알리는 동시에 망덕포구 일대의 자연·문화·역사·레저 콘텐츠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막식은 9월 5일 오후 6시30분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전어잡기, 전어구이 시식, 대형 전어비빔밥 만들기, 전어잡이소

내달 4~6일 진월면 망덕포구서 ‘전어축제’ 개최 별빛나길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 공연·체험 풍성

리 시연 등 전어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어가요제와 초대가수 공연, 지역 예술단체 공연, 댄스대회 등 무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정성으로 차린 전어 한 상’ 라이브 쿠킹쇼에서는 전어회와 전어무침, 전어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전어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매직 버블쇼와 별문 퍼포먼스 등도 진행된다.

축제와 관광을 연계한 ‘진월 명소 탐방 스탬프 투어’도 운영된다.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미션을 완료하면 전어구이 한 접시 또는 섬진강 망덕포구 요트 투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이 행사장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망덕포구와 배알도, 주변 관광지까지 이동하도록 유도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운동주 시 정원.

망덕포구는 550리 섬진강이 광양만과 만나는 곳으로, 예부터 전어 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을철에는 전어회와 전어구이, 전어무침 등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미식 관광지로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변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운동주의 우고를 지켜낸 정병옥 가족과 운동주 시 정원에서 별해는 다리까지 이어지는 ‘별빛나

길’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별해는 다리를 건너면 배알도 섬 정원과 배알도수변공원으로 이어진다. 섬진강과 광양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과 노을, 야경 등을 감상할 수 있어 망덕포구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체험형 관광시설도 갖춰져 있다. ‘섬진강별빛스카이’에서는 질와이어를 통해 섬진강과 광양만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섬진강요트를 이용하면 물 위에서 망덕포구와 배알도 일대의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는 세계 최초 김양식의 역사를 간직한 광양김시식지와 진

월 조선수군지 선소가념관 등이 있다.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광양구간과 섬진강 자전거길도 인근에 있어 걷기와 자전거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축제를 단순한 지역 먹거리 축제에서 벗어나 제철 수산물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전어축제를 통해 제철 전어의 맛과 망덕포구의 관광자원을 함께 알리고자 한다”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주변의 문화·역사·레저 관광지까지 둘러보며 광양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귀진 기자 kkgjin@



광양포구



광양항

‘올가을 유자에 흠뻑’ 고흥유자축제 준비 본격화

군, 11월 12~15일 풍양면 한동리 일원서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최근 군청 발령산출에서 ‘고흥군 축제위원회’를 열어 ‘제6회 고흥유자축제’의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펼쳐질 유자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 기본 계획과 예산 운영(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고흥유자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내실있고 꼼꼼한 실행준비 단계다.군은 축제의 콘텐츠와 운영 전반을 더욱 고도화해 전국 대표 축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11월 가을은 유자전국’이

라는 주제 아래 감기 없는 대한민국 1004 유자담기·나눔행사, 1000년 유자섬의 전설, 유자 랜드마크 조형물, 유유자적 유자길 걷기, 유자발 무미너리 및 빛의 은하수 야간경관, 유자 다이닝존 및 유자 만찬 시리즈, 유자 테라피, 유자 능가 참여 길놀이 등 압도적인 볼거리와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저렴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유자축제는 고흥의 대표적인 명품 축제이자 고흥 유자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

리는 핵심적인 행사다”며 “오는 가을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유자향 가득한 감동과 황금빛 힐링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유자축제는 아놀자리서치와 미국 퍼듀대학교 CHRIBA 연구소, 경희대학교 H&T에널리티스센터가 전국 1214개 축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6 한국 대표 축제 평가’에서 상위 150개 축제 중 인지도·매력도 부문 전국 47위에 올랐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장흥,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낙상 예방…맞춤 집수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장흥군 통합돌봄사업인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낙상 등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병원이거나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낙상 위험도가 높은 돌봄 대상자

의 신체기능과 주거환경을 분석해 화장실·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실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경사로 설치, 가스타이머 설치 등 실질적인 편의와 안전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원에 생애 1회,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집수리가 진행된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고령자에게는 작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도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60311@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지주시 청소년 교류단을 초청해 ‘2026년 구례군-지주시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마무리했다.

구례-중국 지주시 청소년, 우정 쌓았다

3박 4일 문화체험·홈스테이 등 청소년 국제교류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지주시 청소년 교류단을 초청해 ‘2026년 구례군-지주시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에는 지주시 청소년 12명과 인솔자 4명 등 16명의 교류단이 구례를 방문했으며, 구례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 탐방, 전통문화, 지역 체험,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류와 달리 지리산학생수련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직접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교류를

강화했다. 양 도시 청소년들은 레크리에이션과 명랑운동회, 다도, 탈춤, K-POP 댄스, 장구·모듬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구례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천년고찰 화엄사를 비롯해 섬진강 스카이라이프, 자수공방, 구례자연드림파크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체험하고, 결연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생활문화를 경험하며 구례 청소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보성, 100여년 된 토지대장 한글화 DB 구축

한자·일본식 연호 변환…민원 처리·지적행정 효율 높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군은100여년 전 작성된 구 토지·임야대장의 한자와 일본식 연호를 한글로 변환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작성·관리돼 온 토지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토지 관련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지난 2024년부터 3년 동안 지역 내 구 토지대장 20만4813건과 구 임야대장 7689건 등 총 24만355건을 대상으로 한글화 작업을 실시했다.

구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기록한 영구 보존문서다. 조상 땅 찾기, 토지소유권 확인, 등록사항 조정, 토지 관련 분쟁 등 지적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대장은 한자로 작성된 데다 ‘명치’, ‘대정’, ‘쇼와’ 등 일본식 연호를 사용

하고 있어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대장에 기록된 한자 성명과 지명, 지목, 변동 사유 등을 한글로 변환하고 일본식 연호를 현재 사용하는 연도로 정비했다. 원본 내용과 한글 변환 자료를 대조·검수해 자료의 정확성도 높였다.

구축된 자료는 지번 등을 검색하면 기존 대장 원문과 한글화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화했다. 이를 통해 조상 땅 찾기와 소유권 변동 확인 등 구 토지대장 열람이 필요한 업무에서 자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h66@gwangnam.co.kr

곡성,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지역맞춤 일자리 정책 성과 인정…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과 중앙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발하는 정부 대표 일자리 상이다.

곡성군은 곡성형 스마트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미래 청년농 육성 지원, 모듈러주택·공유오피스 기반 위계이션 운영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연계 곡성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계절근로자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일자리·인구정책·지방소멸 대응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산재된 일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청년정착, 미래농업 기반 구축,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를 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심 전략으로 삼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곡성군이 청년과 군민 모두가 새로운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성과다”며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